

주일 예배 순서

- 강림절 제3주 -

인도 : 서진국 장로(과테말라선교사)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로마서 12:1-2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21장(새찬송 21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찬송 117번(스크린 참조)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경제위기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이에게 전파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오실 때까지 완수해야 할 세계선교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사도행전 1:8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서진국선교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봉 헌(offering) 105장(새찬송 105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268장(새찬송 505장) 다함께

주기도문(Lord's Prayer) 다함께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예배인도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진국장로님(과테말라 선교사)께 감사 드립니다. 장로님은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와 함께 예배하시고, 내년 1월부터 다시 과테말라 현지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담임목사님은 가족 중 코로나 환자가 있어 예배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 미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

✧ 과테말라 선교 안내

미국 동부에서 비행기 직항로를 타면 5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인 과테말라는 마야인들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어왔다. 기원전부터 시작된 마야인의 역사는 10세기까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마야문명을 꽃피웠다. 그 후예들이 사는 현재의 과테말라의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은 70년대 초반의 한국농촌을 연상케 하는 농사가 주산업인 가난한 나라이다. 16세기 초 스페인식민지가 되어 지금도 공용어는 스페인어다. 1700만명의 인구 중 40% 이상이 마야인들이고 나머지는 스페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인들과 마야인들의 혼혈족들이다.

마야인들은 토속 무속신앙을 기반으로 스페인 식민지 기간 전파된 가톨릭을 혼합하여 변질된 가톨릭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세기 부터 시작된 미국교단을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을 통하여 복음주의 개신교가 매우 빠르게 세력을 확장시켜 왔다. 현재는 개신교 신자의 수가 가톨릭 신자의 수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 추세는 인근 중미 국가인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그리고 니카라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4년 뉴저지 소재 베다니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저희 부부가 간 곳은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약 200km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꼬방이라는 곳이다. 대부분의 국토가 매우 높은 산악지대로 산길을 따라 속력을 내지 못 하므로 수도에서의 이동시간은 4-5시간이 걸린다.

선교대상은 마야 원주민들이 사는 산꼭대기 시골 마을들이다. 해발 2000미터의 고산지대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살고 있으며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가톨릭 성당은 어디에나 다 있지만, 개신교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교회 마을들을 대상으로 현지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전파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다.

가정마다 평균 5명 정도의 자녀가 있는 다산 문화를 가지고 있고 15살 정도가 되면 혼처를 구하기 시작하는 조혼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원주민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계속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육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 빈곤과 무지에서 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 복음과 교육이라고 믿고 있다.

✧ 기도 제목

1. 과테말라가 중남미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
2.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이 순수한 예수복음을 강하게 전파할 수 있기를 위해
3. 개척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
4. 방과후 학교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위해
5.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여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6. 선교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기를 위해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